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세계성찬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 때가 되면 우리도 허영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알몸으로 서야 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나 우리의 이름 앞에 붙은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임을 아옵니다. 자신의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지만,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을 추구한다고 자부했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때가 많았고, 우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들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었으나 체면의 노예가 되어 쓸 데 없는 것들로 삶을 치장하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0:12 .....	인도자
♠ 교 독 문 .....	41. 이사야 65장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유경순 집사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89. 사론의 꽃 예수 .....	다함께
성경봉독 .....	창1:1-5 .....	인도자
	민17:6-11 .....	정현주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하늘이 열리고 .....	김기석 목사
	기억의 성사(聖事) .....	김기석 목사

성찬예식 .....	인도자/회중
헌신의 찬송 .....	284. 주 예수 해변서 .....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주님의 뜻 앞에 온몸과 마음을 바치십시오.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가져가는 복의 매개자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신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갖가지 유혹이 몰려들어 정신이 혼란할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가려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택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4남선교회 주최예배	10월 기도의 밤
말씀 : 박상철 목사(육군 군종감)	인도 : 김재흥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한인철 목사	김지호 선생 윤정덕 장로	인도자 홍순구 집사

<b>10월</b>	영접위원	구성실	고사일	하현철	박석희	이기분	최영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근종	유영남	최숙화	안정숙

##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라디오에서 익숙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그 곡을 들었습니다. 실내악으로 연주되는 찬송가 467장이었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곤한 이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곤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온 후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그 조용한 선율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듯 하였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이런 곡을 틀어주네” 했더니, 아내가 “가끔 잘 나와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곡이 끝나고 방송진행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들으신 곡은 금호사중주단이 연주한 영국 민요 ‘그대 눈동자를 술잔에 담아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였습니다.” 뭔가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이 즐겨 부르던 곡에 가사를 바꿔 찬송가로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니다.

하루 종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곤한 이들아’ 하는 곡이 제 입 끝을 뱅뱅 맴돌더군요.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흐린 얼굴도 있고, 밝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가요? 주부들은 대개 피곤해 보였습니다. 명절 뒤끝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뒷모습을 일별합니다. 예배 중에 자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무르시는 분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메마른 제 가슴에도 짙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가족을 부양하고 보살피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어깨통증으로 맺혔을 테지요.

자리에 눕고 싶을 텐 데도 교회를 찾아온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향해 화살기도를 날립니다. “곤한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저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소서.” 그리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때때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조차 없어 보이는 교인들을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지레 판단은 그만 두어야 하겠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나를 사랑해달라’는 외침으로 가득 차 있다지요? 그 외침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숨죽인 채 피어나는 풀꽃 한 송이도 가슴 아리게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감상적이 되었느냐고 책망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책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자연이 경전이라는 말은 시인의 빈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생명의 몫을 살아내기 위한 못 생명들의 몸부림은 다 거룩합니다. 말이 너무 커져 버렸네요. 하지만 새벽마다 골판지 상자를 수거하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는 아주머니나, 옥망의 배설물들인 쓰레기들을 쓸고 줍는 환경 미화원들, 그리고 선산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처럼 허리 굽은 농촌 노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듯 싶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삶의 잔을 정성껏 마시고 있는 사람들, 그들 곁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마음 편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으며 하나님 고마운 줄은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삶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의 처지를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화하다니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깊어지고 있는 생의 무거움은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못났기 때문도 아님을 알 겁니다. 발버둥칠수록 더욱 얽혀드는 덩치처럼 가난과 무지는 제도화되고 있는 터입니다. 좀 나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중심에서 비껴난 이들과 함께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다 이야기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晩鐘)이 떠오릅니다. 해질녘까지 들판에서 일하던 부부가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적어도 그 시간 그들이 바치는 기도는 감사와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 종소리의 여운 속에서 울려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곤한 이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석)

## 맡겨둔 것이 많다

세탁소에 맡겨 두고 찾지 못한 옷들이 꽤 여러 벌 된다  
있고 있다가 분실하고 맡았다 스스로 떠나기도 했다 지금  
은 누구 몸을 입고 열심히 낚아가고 있을까 내 길이 아  
닌 남의 길 어디쯤을 어떻게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나다니  
고 있을까 그것들 말고도 내게는 맡겨 둔 것이 많다 몇  
해 전 일본 가고시마 공항 보관소에 맡겨 두고 온 라면집  
여자의 눈물도 있다 맡겨 둔 것이 많다 지지난 해엔 내  
아버지마저 하늘 나라에 맡겨 드렸다 어머니는 훨씬 오래  
전 30년이 넘었다 나는 어느 것도 버리지 못한 채 유보  
의 짐을 지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누장을 부리고 있다  
내 삶의 후반부가 더욱 더디다 꼬리가 길다 오늘도 기다  
리다 지쳐 삼삼오오 스스로 길 떠나고 있는 뒷등들 아득  
히 바라보면서도 나는 그런다(정진규)

우리가 맡겨 둔 것도 많지만, 남들이 내게 맡겨 둔 것도 참 많군요. 인  
도에는 ‘소 흠 So Hum’이라는 산스크리트어 격언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 Estis, ergo sum’는 뜻입니다. 생명은  
이런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영위되는 것인가 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  
게 나의 생을, 시간을 맡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한완식 임정자 이용한 오성희 윤석철 장혜숙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안종일 정현주 구명자 홍순구 안홍숙  
 박규석 박경선 김용길 최영혜 이은옥 이유선 방극숙 박시내 박정숙  
 임승동 백혜숙 박홍엽 고광승 이춘희 임고운 조병무 송양진 김용원  
 임보람 남현우 김은진 최인환 박재실

###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하정석 이명희 이지훈 조항범 오현정 황경순 박범희  
 박준희 이기분 이희균 김영한 고숙이 이경남 전영자 이은자 이호원  
 조동길 배부례 김승현 김승현 김수진 서재홍 박현우

### 감사헌금:

김희우 이명옥 이정은 조항범 오현정 김용진 박효선 황경순 오성희  
 김혜선 임창선 이호원 이병철 김현민 박정숙 가버나움속 무명3

### 생일감사헌금:

김용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연 합 속 회	노용래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윤정덕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김명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조병주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임창선
시온	박효선	허정윤		송의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박현우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김시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세계성찬주일** :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2. **속장인도자회** : 예배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3. **오후집회** : 제4남선교회 주최예배로 드립니다. 육군 군종감이신 박상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4. **교회학교 교사교육** : 향심기도를 주제로 오후집회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열려있습니다.
5. **기도의 밤** : 오는 수요일(6) 오후 7시 30분에 10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가쁜 숨을 고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6. **봉사** : 종묘 급식 봉사가 6일(수) 오전 11시 10분에 실시됩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7. **담임목사**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3일(일) 저녁에 출발해 14일(목) 저녁에 돌아옵니다. 시내산에 올라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8. **신앙실천** : 여러 갈래로 찢긴(남북, 이념, 정파, 빈부, 동서, 세대, 남녀...) 이 나라가 이해와 사랑과 관용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벽을 먼저 허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헌화 : 정두리 권사 (남편 추도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